

발행인 칼럼

당진시의회 의장·의원의 무관심은 '불통'



가금현 CTN/교육타임즈 발행인

고 있는 언론인이 바라보는 시각은 분명 차이가 있다.

그 첫 번째가 서산시의회와 당진시의회 의장과 의원이 보여준 행태다.

6일 서산시장 신년 기자회견이 열리는 대회의실에는 20여 분 전부터 조동식 의장을 비롯한 많은 의원이 방문 각 언론인과 새해 안부를 묻으며 덕담을 나누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펼쳐졌다.

그리고 기자회견이 시작되기 전 조동식 의장은 앞에 나와 참석한 전 언론인에게 새해 덕담한 마디 남기고 함께한 의원들과 함께 바로 퇴장했다.

이 같은 일은 매년 반복되는 일이며, 많은 언론인과 한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기도 하다.

짧은 만남 속에 서로의 안부를 묻는 것만으로도 소통이 이뤄질 수 있는 공간이며 시간이다.

하지만 당진시장 신년 기자회견 장소에는 당진시의회 의장은커녕 단 한 사람의 의원이 눈에 보이지 않았다.

이들은 분명히 이 자리에 많은 언론인이 참석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터다.

이 자리에 10~20분이면 그 많은 언론인과 소통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데도 당진시의회는 눈을 감아버린 것이다.

기초의회가 국회를 흉내 내고자 하는 것인지, 아니면 권위주의의 구렁텅이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해 그런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서영훈 당진시의회 의장은 시의회 홈페이지에 '시민을 섬기고 일하며 책임지는 의회를 실현하는 가장 쉽고 빠른 지름길은 소통공간이라고 밝히고 제4대 당진시의회는 시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시민 행복과 당진 발전에 더욱 정진하겠다고 써놓았으나 이는 허구호나 마찬가지다.

당진시의 한해 운영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이며, 당진시 출입 기자가 가장 많이 모이는 장소에 얼굴 한번 비추지 않으면서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

시장의 기자회견장에 잠깐이라도 얼굴을 비추고, 덕담을 나누는 서산시의회 의장과 의원들이 진정 소통하고자 하는 마음인지, 코빼기조차 보이지 않는 당진시의회 의장과 의원들이 소통의지가 있는 것인지 스스로 알고 있을 것이다.

이제라도 의원이라는 권위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나 소통의 자리에 함께할 수 있길 바란다.

또 하나는 서산시장은 기자회견에 앞서 함께 한 부시장을 비롯해 자라이동 또는 승진한 고위직 공직자를 언론인에게 소개, 그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었던 반면 당진시장은 이를 생략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충남 당진시는 7일 2025년 새해를 맞아 7일 시청 해나루 홀에서 오성환 시장이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시정 운영 방향을 밝혔다. 이날 당진시를 출입하는 대부분의 기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오 시장은 2025년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시민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6일에는 서산시가 앞서 대회의실에서 이완섭 시장이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시정 운영 방향을 밝힌 바 있다. 오성환 당진시장이나 이완섭 서산시장의 각 지자체의 운영 방향을 밝히고 소통하는 것은 다를 바 없다. 하지만 주민에게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자리하

사설

학교비정규직의 도 넘은 위력 행위 이대론 안 된다

강주호 한국교총 강주호 회장과 충남교총 이준권 회장이 학교비정규직의 도 넘은 위력 행위에 대해 죄시하지 않고, 학교장의 조치를 지지하고 끝까지 보호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지난 15일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최근 특수교육실무사 휴게시간과 관련해 충남 학비노조로부터 고발당한 당진꿈나래 학교장을 방문해 위로하고 모든 법적·재정적 지원에 발 벗고 나서겠다고 했다.

당진꿈나래학교는 10여 명의 특수교육실무사들이 수업시간을 포함해 휴게시간(1시간)을 가지면 학생들의 학습권·안전권 보장에 어려움이 있어, 불가피하게 지난해 3월부터 휴게시간을 하교 이후로 조정하고, 시간도 충남교육청-충남 학비노조 간 단체협약으로 정한 30분 기준으로 변경한 바 있다. 이에 학비노조는 기존 방식을 요구하며 수개월 간 학교 앞 시위, 노동쟁쟁, 학교장 고발을 이어가고 있는 상태다. 이에 강 회장은 특수교사들이 혼자 장애학생들을 돌보게 되는 고통을 해소하고 학생 안전을 위해 교장 선생이 취한 조치가 형사고발로까지 이어진 데 대해 안타깝다고 했다.

이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학생 교육과 안전을 최우선 하는 신념으로 꿋꿋하게 맞서 주신 것에 대해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리고, 학교비정규직의 도 넘은 위력행위는 결코 좌시할 수 없으며, 이번 갈등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인 상담과 변호사 연결, 수

의료 지원 등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갈수록 교육공무직 등 학교비정규직의 학교대상 위력행사가 잦아지고, 특히 학생을 불모로 한 연례적 파업으로 학교 운영이 파행까지 겪고 있다며 '학교필수공익사업법'을 실현해 학생과 선생님들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학교필수공익사업법은 파업 시 대체인력 투입을 허용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으로, 현재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그는 교육공무직과의 갈등 구조 속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회장인 저부터 언제든 달려와 듣고 해결하겠다면서 특수학교 근무 환경과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법·제도 마련에도 교총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방문에는 이준권 충남교총 회장이 함께했다. 충남교총은 당진꿈나래학교의 정상화를 위해 학교장 상담과 공동 대응, 성명 발표, 기자회견 개최 등의 활동을 전개해 왔다. 14일에는 충남교총 사무총장, 고문변호사가 학교장을 방문해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준권 회장은 교사의 고통을 해소하려 했던 교총 선생님의 조치를 지지하고 끝까지 보호할 것이며 충남교총은 한국교총과 함께 지속적인 변호사 상담, 수업료 지원 등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제 아이들의 교육권과 안전을 보호하는데 너나 할 것 없는데 모두 동참해야 할 것이다.

CTN 논단

정치시장



가갑손 충청대학교 명예교수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양, 품질, 시장 위치, 내부 환경 및 서비스 등 시장 인프라와 마케팅 능력에 따라 결정된다.

시장은 고객의 선호도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시장은 기업의 생사를 좌우하는 경쟁의 투쟁이다. 고객은 시장의 주권을 독점하고 있으며 기업의 존재 이유이며 생존 조건이다. 정치시장은 정치인이라는 상품을 사고파는 시장을 말한다. 정치시장은 국회와 정당이며 국민도 포함된다. 선거라는 거래 수단으로 국민을 공급자인 정치인을 선택하게 된다.

지금 정치시장은 붕괴의 위기에 처해 있다. 정당과 정치인이 국민으로부터 불신과 타박을 받고 있다. 정치시장의 불황이 극에 달해 시장의 존속 여부가 관심거리다. 국민은 정치에 무관심하고

선거에 등을 돌리고 정치시장을 외면하고 있다. 시장에 가보면 사고 싶은 상품이 없기 때문에 시장에 가기를 포기하거나 외면한다. 정치시장의 활성화 방안은 없는 것일까? 정치라는 상품을 명품화해야 한다. 정치시장을 과감히 개조해 시장의 현대화를 이루어야 한다.

대표적인 정치시장은 국회와 정당의 혁신이 시급하다. 정치 상품인 정치인의 자질, 품격, 국가관, 애국심 등을 갖춘 상품의 내용과 포장을 바꾸고 정치 고객인 국민에게 만족과 감동을 제공할 새로운 마케팅 전략을 도입 시행해야 한다.

정치시장의 붕괴는 대한민국의 존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를 허물 수 있는 위협의 신호이기도 하다. 정치시장을 활성화하고 정치 상품을 개발해야 한다. 정치시장은 가장 공정하고 상품은 최고의 품질을 유지해야 한다.

시장은 상품을 사고파는 일정한 장소를 통칭한다. 다른 말로 하면 공급자(생산자)와 수요자(소비자, 고객)간 상품을 사고파는 곳이다. 상품

진천군, 출생아 증가율 압도적 1위

전년 대비 18% 상승...충북 유일 두 자릿수 증가율 '고공행진'

충북 진천군 출생아수 증가율이 충북 도내에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며 출생절벽 시대를 역주행하는 성과를 올리고 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진천군의 2024년 누계 출생아 수는 504명으로 전년 대비 약 18%(+77명)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국 평균 출생아 수 증감률 3.1%(+7,295명), 충북의 출생아 수 증감률 -0.7%(-54명)와 비교해 진천군의 증가율은 압도적인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충북 도내로 보면 유일하게 두 자릿수를 기록할 만큼 전년 대비 증가 폭이 눈에 띈다.

사회 전반의 출생률이 급감하고 있어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 차원의 출산 장려정책이 강력하게 추진되는 가운데 진천군은 출생아 수 증가라는 지속 가능한 인구구조를 확립해 가고 있다.

특히, 군의 '조출생률'은 약 5.8명의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 역시 충북 도내에서 가장 높은 수치다.

조출생률은 특정 지역에서 1년간 인구 1천명당 태어난 출생아 수를 나타내며, 전체 인구 대비 출산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주요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주목할 부분은 20~30대 인구 대비 조출생률을 비교했을 때 진천군은 26.5명으로 나타나 충북에서 가장 높았으며, 충북 평균인 21.0명을 훨씬 상회해 결혼, 출산 적령기 인구의 실제 출산 비율이 높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국가경쟁력 저하, 지역소멸을 가속화하고 있는데 군의 출생아 수 증가를 기반으로 한 인구정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군은 그동안 저출생·고령사회 정책 지원 조례를 제정해 다양한 분야에서 선제적인 출생 지



원 정책을 펼쳐왔다.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인구정책 추진을 통해 출산과 양육, 보육과 교육에 이르기까지 젊은 세대들을 겨냥한 출생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특히, 지난해 7월에는 충북 도내 최초로 인구정책과를 신설하고 출생정책을 전담하는 저출산대책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군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올해부터는 현재 1.0명 내외인 합계출산율을 2.0명으로 끌어올린다는 정책목표 아래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인 '마하 2.0+' 프로젝트를 고향사랑기부금과 연계한 차별화된 출생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송기철 진천군수는 "지방정부의 인구증가는 외부 인구 유입 등의 사회적 증가를 확대하는 동시에 출생에 기반한 자연적 증가를 동반해야 양적·질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다"라며 "인구가 지역의 발전을 이끄는 핵심 성장동력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인구구조를 확립하는데 중점을 두고 인구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종 기자

만물창고

백만매택 천만매린(百萬買宅 千萬買鄰)



신동호 CTN/교육타임즈 논설위원

여승진이 연주지사로 있을 때 하루는 채소를 팔면서 어렵게 살던 동생이 형은 높은 벼슬을 하고 있으니 자신도 벼슬을 한자리 얻을 수 있을까 싶어 찾아왔다. 하지만 그는 동생의 청을 거절하며 "나는 황제의 은혜를 많이 입었으나 아직까지 보답을 못하고 있는데 어찌 내 사리를 앞세울 수 있겠느냐. 너는 채소 장수를 해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으니, 그 일을 계속하게 좋을 듯싶다" 말해 돌려보냈다고 한다.

한편, 여승진이 사는 낮은 집 옆에는 관에서 운영하는 마구간이 있어 늘 소란스럽고 냄새가 나 많이 불편했다. 여승진의 주변 사람들이 마구간을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명령하면 되지 않느냐고 하자 여승진이 불같이 화를 내면서 말했다. "어떻게 내 일신의 편의를 위해 관가의 마구간을 옮길 수 있단 말이오". 그의 성품에 그를 향한 백성의 존경심은 날이 갈수록 높아져 많은 사람들이 그의 집 근처에서 살고 싶어 했다.

남강군수 송계야는 여승진의 명망을 흠모하여 임기를 마치자 여승진의 집 옆에 있는 저택을 구입하고 인사를 온 송계야에게 여승진이 집값을 얼마냐 주었느냐고 물으니 "일천 일백만 냥입니다."라 하자, 엄청난 액수에 깜짝 놀란 여승진은 "무슨 집값이 그렇게나 비싼가요?" 송계야가 씩 웃으며 "백만 냥으로 집을 샀고, 천만 냥으로 이웃을 샀습니다."라고 했다고 한다.

여기서 나온 성어가 '백만금으로 집을 사고 천만금으로 이웃을 산다'라는 뜻의 백만매택 천만매린 百萬買宅 千萬買鄰으로 좋은 이웃은 천만금으로

도 얻기 어렵다는 의미다.

여승진은 이웃으로 이사 온 송계야와 자주 어울리다가 송계야가 재능이 출중한 사람임을 알고는 그를 황제에게 추천해 여승진을 철저히 신뢰한 황제는 곧바로 송계야를 형주 지사에 임명하고 기대에 부응이라도 하듯 송계야는 형주를 잘 다스려 수 년 안에 큰 업적을 이루었다.

송계야가 여승진을 얻은 것처럼 좋은 이웃을 얻고 싶은가? 라는 답은 공자가 《논어》에서 덕불고 필유린德不孤 必有鄰 이라 해 '덕이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으니, 반드시 좋은 이웃이 생기기 마련'이라고 밝혔다.

스스로 덕을 갖추면 내가 좋은 이웃을 찾아 갈 필요 없이 좋은 이웃이 찾아 온다는 말로 좋은 이웃과 서로 왕래하며 삶을 나누는 것, 그것이 인생이 주는 커다란 행복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맹모삼천지교孟母三遷之教란 말을 많이 들었고 그 내용에 대해 알고 있을 것이다.

맹모삼천지교는 전한 때 학자 유향劉向이 지은 열녀전列女傳에 등장한다. 맹자孟子가 어렸을 때 모친이 가까이 살았더니 장사 지내는 흉내를 내기에, 집을 시전 근처로 옮겼더니 이번에는 물건 파는 흉내를 내기에, 다시 글밭 있는 곳으로 옮겨 공부할 시켰더니 그럭저럭 맹자의 어머니 급수汲氏가 아들을 가르치기 위하여 세 번이나 이사 하였음을 이르는 말로 맹자를 길러낸 맹모의 교육열을 잘 보여준다.

이 모두 이웃의 소중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좋은 이웃을 만나기 전에 내가 그들의 좋은 이웃이 되는 것은 어떻게.

내가 살고 있는 곳에 좋은 이웃이 있다는 것은 행복이다. 원수불구근화(冤水不救近火)란 말이 있다. 이는 멀리 있는 물은 가까이에서 일어난 불을 끄지 못한다란 뜻으로 어려움에 빠져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빠른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정답은 바로 가까이 사는 이웃이다. 하지만 가까이 산다고 다 좋은 이웃은 아닐 것이다. 우물에 빠졌는데 구해줄 생각이 커녕 오히려 우물 속에 돌을 던지는 식으로 남의 불행을 가중하는 나쁜 이웃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거필택린(居必擇鄰)이란 말이 있다. 이웃을 가리키는 의미다.

중국 남북조시대 때 양나라 무제가 통치하던 시절 여승진이라는 명망 높은 대신이 있었다. 그는 전쟁터에서 많은 승리를 거둔 뛰어난 장수였지만 평소엔 늘 겸손하고 온화한 인격자이자 정백리로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았다.

CTN 교육타임즈 2014년 9월 1일 (주간) 등록번호 충남, 다01378 발행·편집인 가금현 / 편집국장 한성진 / 인쇄 디앤코리아(주) 뉴스제보:041-631-8114 / 광고문의:080-631-8114 / 010-4222-9009 주소 : [32416] 충남 예산군 삼교읍 청사로225 엔젤스타워2차 309호 독자서비스센터 : 041-337-1791 / 팩스 : 041-337-1790 E-mail : ctn114@hanmail.net / 홈페이지 : http://www.ctnews.kr 구독료: 월 1만 2000원 / 저매지 월간충남, 충청타임즈, CTN방송 CTN저매지로 별도의 특수주간 신문 등록 및 사업자가 있으며, 신문윤리경영 및 그 실천요령을 준수함이다.